

2월 1주
세상의 빛이신

- 본문 말씀: 요한복음 9:1~7 (2월 1일 본문)
- 포인트: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보게 하세요.

예수님

1. 기도

좋은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지혜를 얻게 해 주세요.

2. 찬양

(경배와 찬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3. 말씀

요한복음 9:1~7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1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2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 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 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말 성경>

1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을 만나셨습니다. 2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3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4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6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7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 본문 이해

질병이나 장애를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치유해 주셨어요. 그 맹인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는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어요. 이 일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표적이에요.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요한복음에 언급되는 '표적'은 예수님이 기적이라는 소재를 통해 가르치시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리는 표적이에요. 8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8:12)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9장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사건을 통해 그 의미를 알려 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던 중에 만난 맹인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지닌 생각(죄 때문에 질병을 얻거나 고난당한다)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흙을 반죽하신 후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그는 말씀에 따라 실로암에 가서 씻은 후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어요. 요한은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실만을 전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이어서 안식일에 치료하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믿었다가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해 증언하기를 머뭇거리는 맹인의 부모에 관해 기록해요. 하지만 눈을 뜬 당사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셨음을 당당하게 증언하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전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을 연구한다는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정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맹인(9:39~41)이라고 하셨어요.

≡ 4. 나눔

1) 한 맹인을 만나신 예수님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나요?(3절)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치유해 주셨나요?(6~7절)

■ 저학년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통해 무엇을 보여 주려고 하셨나요?(5~7절)

■ 유아·유치

예수님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셨나요?(3절)

□ 질문 가이드

예수님은 사람의 질병을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시는 예수님이 맹인을 어떻게 치유해 주시는지 나누어 보세요. 실로암에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온 맹인이 육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영적 눈도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이세요. 본문에 나오는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으로, 맹인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해요. 맹인이 눈을 뜬 이후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이어져요(9:13~34). 바리새인들은 육적 맹인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영적 맹인과 같았어요. 반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영적 시각이 밝아진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어

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9:11), '선지자'(9:17),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사람'(9:33), '주님'(9:38)이라고 고백하는 그는 예수님을 밝히 아는 자가 되었어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맹인은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2) 각자 믿음의(영적) 시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누어 보세요. 믿음의 눈이 어둡다면, 빛이신 예수님께 믿음의 눈을 열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세요.

■ 저학년

아직 어둡고 흐린 나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달라고 빛이신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 유아·유치

빛이신 예수님께 나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달라고 기도드려요.

□ 질문 가이드

안과나 안경점에 가면 시력 측정표를 가지고 눈이 얼마나 좋고 나쁜지 시력 검사를 해요. 그와 같이 각자 믿음의 시력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해 보세요. 육체의 시력이 좋지 않을 때 겪는 어려움을 생각하며, 믿음의 시력이 어두울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나누어 보세요. 믿음의 시력은 구원과 영생과 연결되기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주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맹인은 예수님의 치유로 눈을 뜨게 되었고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 눈도 뜨게 되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도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밝히 보며 살아가는지 믿음의 시력을 점검해 보길 바라요. 그리고 믿음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 어떤 노력과 연습이 필요할지도 나누어 보세요.

5. 감사하기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세요.

6. 기도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밝히 알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에 늘 깨어 있게 하시고, 일생 동안 빛이신 예수님만 따르게 해 주세요.